

다니엘의 책 - 제78번

네 가지 가증한 것들의 베일을 벗기기: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에 나타난 반역의 역사적 병행

Jeff Pippenger
2024-02-11

아모리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가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에 대해 집행되는 때를 예시하는 데 사용된다. 화이트 자매는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모리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징벌을 집행하시는 시기가 동일하다고 밝힌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아모리 민족은 우상숭배와 부패로 두드러졌지만, 아직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우지는 않았다... 자비로우신 창조주는 그들의 죄악을 사대까지 참아 주실 의향이 있으셨다. 그 후에도 더 나아지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그분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었다. 무한하신 분은 지금도 모든 나라에 대하여 틀림없는 정확성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계신다. 그분의 긍휼이 회개를 촉구하는 부름과 함께 베풀어지는 동안에는 이 장부가 열려 있겠지만, 그 수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분량에 이르면 그분의 진노의 집행이 시작된다. 장부는 마감된다. 신적 인내는 끝난다."

화이트 여사는 에스겔이 14만4천의 인침을 묘사하는 맥락에서,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사역이 그들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 시작되며, 그 잔은 네 번째 세대에 이르러 충만에 달한다고 분명히 연관짓는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8장에서 시작된 환상의 맥락 속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환상은 점증하는 네 가지 가증함을 묘사한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보니, 제단 문 어귀의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그 입구에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 여기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큰 가증한 일들을 말이다. 내가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너는 다시 돌이켜라. 네가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보리라. 그가 나를 뜰의 문으로 데려가시니, 내가 보니 벽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그 벽을 파라 하시기로 내가 그 벽을 파니 문이 보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에서 행하는 악한 가증한 것들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사방 벽에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둘러 그려져 있더라.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칠십 명이 서 있고, 그들 가운데에는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가 서 있으며, 각 사람이 손에 향로를 들고 있고, 진한 향 연기가 올라가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어두운 데서, 각 사람이 자기 우상의 방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다시 돌이켜라. 그들이 행하는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전 북쪽을 향한 문 어귀로 데려가시니, 보라 거기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우는 여인들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이켜 보라. 그리하면 네가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보리라. 그가 나를 여호와와의 전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니, 보라, 여호와와의 전 문 곁, 낭실과 제단 사이에 스물다섯 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등은 여호와와의 전을 향하고 얼굴은 동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한 해를 경배하고 있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의 집이 여기에서 행하는 이 가증한 일들을 작은 일로 여기는 것이냐? 그들이 포악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고 다시 와서 나를 노하게 하니, 보라, 그들이 그들의 코에 가지를 대는도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대하리라.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8:5-18.

제단의 문 어귀에 질투의 형상을 세운 첫 번째 가증한 일을 에스겔이 본 뒤, 그는 그 질투의 형상보다도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두 번째 가증한 일은 은밀한 방들로 표현되는데, 그곳에서는 옛 사람들로 표현된 지도층이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올리며,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자신들을 보지 않으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다시 듣는다.

세 번째 가증한 일은 "담무스를 위하여 우는 여자들"로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으니, 네 번째 가증한 일은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스물다섯 명의 지도자들을 지목한다.

네 번째 가증한 일에서는 "늙은 자들이 이 땅을 폭력으로 채웠고, 다시 와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대었다"라는 선언이 내려진다. "노하게 한 날"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날인데, 이는 고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관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메시지를 거절했을 때와 마찬가지로이다. 인침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최악의 잔이 가득 찼음을 가리킨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작은 무리를 대표하는데, 그들은 교회와 이 땅의 가증한 일들에 대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신실한 소수이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자들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 하였더니,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유업에서 끊어 버리며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민수기 14:5-12.

민수기와 에스겔에서 반역자들이 야기한 "노하게 함"은 드러난 "표적"을 인정하기를 그들이 거부한 데에 근거한다. 모세 시대에 거절된 "표적"들은 밀러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을 예표한 "표적"들이었다. 고대 이스라엘은 그들의 기초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의 "표적"들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때에 현대 이스라엘도 말세에 반복되는 한밤중의 외침의 역사의 반복을 "알아보게" 해 주는 "표적"이 되어야 했던 바로 그 기초 역사를 거절한다(등을 돌린다).

하나님은 반역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반복되는 것을 보도록 허락하신다. 이는 그 나타남의 반복이 단지 늦은 비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을 구원했을 진리였기 때문이다.

에스겔 8장의 네 가지 가증한 일들을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의 네 세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봉함을 푸시는 기별의 한 부분이다. 첫째 세대는 1863년의 반역에서 시작되었고, 25년 뒤인 1888년에 밀실의 상징과 함께 둘째 세대의 시작을 표시한 반역이 도래했다. 그로부터 31년 뒤인 1919년에 W. W. Prescott의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책의 출판은, 에스겔이 담무스를 위하여 우는 여자들로 묘사했던 셋째 세대의 시작을 표시했다. 그로부터 38년 뒤인 1957년에 '교리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반역자들이 동방에서 올라오는 인치는 기별을 거슬러 돌아서서 해를 경배하게 될 때를 지목하는 넷째 세대가 도래하였다.

우리는 1888년 미니애폴리스 총회에서 드러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제2세대 반역을 살펴보기 시작하겠다. 에스겔서의 네 가지 가증한 일들이 모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들은 반역의 점진적 역사를 나타내지만, 언제나 말세의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를 대표하는 그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반역을 다루고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리는 표징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을 속이고, 많은 무리를 광야로 이끌었다. 기적의 능력을 주장하는 마술사들과 술사들도 사람들을 산속의 외딴 곳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 예언은 마지막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 이 표징은 재림의 징조로 주어졌다.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그분의 제자들을 미혹하려 한다.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는 외침을 우리가 듣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수천 명이 광야로 나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죽은 자의 영들과 교통한다고 자칭하는 수많은 집회들에서 지금 "보라, 그가 골방에 있다"는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강신술이 내세우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든 하시는가?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비치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시대의 소망, 631쪽.

밀실은 심령술의 상징이며, 에스겔 8장의 두 번째 가증한 일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서는 땅의 형상들이 은밀히 벽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니, 보라,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한 짐승들, 그리고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집의 장로 칠십 명이 서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가 서 있었으며, 각 사람은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고, 두터운 향의 연기가 올라갔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집의 장로들이 어두운 데서, 각 사람이 자기 형상들이 있는 골방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주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더라. 에스겔 8:10-12.

에스겔은 성소의 벽에 묘사된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을 보지만, 그는 이 반역이 장로들 각자의 "심상의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듣는다. 실제 성전 안의 반역은 인간 성전 안의 반역을 드러낸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심으로, 죄의 더러움—곧 영혼을 부패시키는 세속적 욕망과 이기적 정욕과 악한 습관들—으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다. 말라기 3:1-3 인용. 시대의 소망, 161쪽.

두 번째 가증한 것은 교회 내부와 교회의 수호자여야 했던 장로들의 마음속에서 드러난 악의 발현을 상징했다. 거기서 드러난 악은 영령주의의 악이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상상이 악했을 때, 홍수 이전 사람들은 최악의 잔을 가득 채웠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땅에서 사람의 악함이 매우 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다. 창세기 6:5.

두 번째 세대는 심령술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 조직 구조 속으로 들어온 시점을 식별한다. '이스라엘 집의 장로들'이 '어두운 데서,' 그들의 '상상의 방들' '안에서' 한 일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오직 악할 뿐'이었음을 드러낸다. 화이트 여사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의 종말을 대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한 증언 또한 세상의 종말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마지막 날들에 진리로 성화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에스겔 8장의 둘째 가증한 것으로 표현된 심령술에 사로잡힌다.

에스겔의 두 번째 가증한 일은 1888년에 찾아온 반역을 나타내며 두 번째 세대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1888년과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 혹은 그것으로 상징되는 모든 것은 2001년 9월 11일에 반복되었다. 화이트 자매는 1888년에 요한계시록 18장의 능한 천사가 내려왔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며, 그러므로 그 역사는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님의 한 번의 손길로 무너져 내리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이 성취될 때를 나타낸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와그너와 존스 형제들을 통해 전해진 주님의 메시지에 맞서 나타난 반대의 상당 부분은, 선입견을 버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탄은 그 반대를 부추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 백성에게서 상당 부분 차단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원수는 그들이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진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 그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었던 그 효과적인 역량을 얻지 못하게 막았다.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밝힐 빛은 거부되었고, 우리 형제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 빛은 상당 부분 세상에 전해지지 못했다. 선택된 메시지, 1권, 235쪽.

1888년의 역사는 2001년 9월 11일에 도래한 늦은 비의 기별을 거절한 사례를 제공했다. 1888은 라오디게아 재림주의 둘째 세대의 상징이며, 그것은 에스겔의 두 번째 가증한 일로 대표된다. 그 역사 속에서는 에스겔의 칠십 장로들이 예표한 반역이 확인된다.

그들의 반역은 강신술을 대표했으며, 노아 시대에 은혜의 기간의 잔이 가득 찼던 것과 상응했다. 그 기별의 거절은 지도부가 이슬람의 셋째 화의 도래를 식별하도록 되어 있던 늦은 비의 기별을 거절했음을 보여주었다.

“늦은 비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내리게 되어 있다. 한 능력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으며, 온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1년 4월 21일.

1888년에 그 기별을 거절했던 지도부는 2001년 9월 11일에 이슬람의 기별이 거절된 일을 표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의 일부로서 그 지도자들이 목격하게 될 권능의 나타남을 일으키실 계획이다. 늦은 비의 권능의 나타남은 인침 기간의 끝에 일어난다. 그것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으나, "큰 지진"이 임하는 요한계시록 11장의 삼일 반이 끝날 때 절정에 이른다.

1888년의 메시지는 라오디게아의 메시지였으며, 그때 외면당해 가고 있던 한때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진 마지막 부르심이었다.

"A. T. 존스와 E. J. 왜거너가 우리에게 전해 준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며,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888 자료, 1053.

1888년의 기별은 2001년 9월 11일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곧은 증언이 주어져야 함을 밝혀 준 기별을 대표했으며, 그 곧은 증언은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백성에게 숨을 불어넣을 때 그들을 강력한 군대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셋째 화의 이슬람의 기별이다.

우리의 교회와 기관들에게 바른 증언을 전해야 한다. 잠자는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될 때 착실한 진전이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의 큰 필요를 살펴보자. 주님께서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깊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주는 영향이 없이는 진리는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Review and Herald, 1902년 11월 18일.

1888년은 재림주의 둘째 세대의 시작을 알리지만, 동시에 말세와 일치하는 예언의 한 계통도 제시한다. 2001년 9월 11일,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공격한 사건이 예언의 성취임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옛 길로 돌아가게 이끄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윌리엄 밀러의 보석들로 돌아가,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성취를 포함하는 기초 진리들을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는 그때 셋째 화의 도래를 확증해 주었다. 그들이 그 옛 길로 돌아가자, 그들은 하박국의 두 판의 거룩함을 보도록 인도되었다.

1863년에 하박국의 두 도표, 곧 밀러의 보석들이자 재림주의의 기초에 대항한 반역은 2001년 9월 11일에 반복된 반역을 예표했다. 이는 다시 한 번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지도부에게 밀러의 보석들을 옹호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에스겔 8장에 나타난 재림주의의 네 세대 모두는 또한 2001년 9월 11일의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반역을 대표한다.

다음 글에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제2세대를 계속 규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실재를 포용할 수 있는 애정을 지니도록 창조하셨다. 이러한 애정은 모든 세속성에서 벗어나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져야 했다. 그러나 인간은 계산에서 영원을 제외해 버렸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며 모든 영혼의 운명을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잊혔다. 스스로 지식이 대단하다고 여기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세속적으로 변했다. 신성의 형상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인간의 형상을 드러낸다. 그 내실에는 세상의 형상들이 보인다. 노아의 시대에 성행하여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의 소망 밖으로 몰아넣었던 타락한 행습들이 오늘날에도 보인다. 시대의 징조, 1901년 12월 18일.